

韓國法史學會

法史學研究

〈第 61 號〉

민속원

2020.5.

목 차

발간사 6

〈일반 논문〉

- 17세기 한성부 決訟立案을 통해 본
家堡訟 요인과 판결 이후 소유권 확보의 과정 권이선 / 11
- 로마법상 侵辱 불법행위에 관한 소고 이상훈 / 41
-고전기법상 자유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侵辱 사례를 중심으로-
- 로마법상 投下物·流出物 訴權
(Actio de Deiectis et Effusis)에 관한 小考 한승수 / 105
- 카르프조프의 간접고의(dolus indirectus)에 대한 간단한 고찰 최준혁 / 149
-형법에서의 고의 개념의 역사-

〈서평〉

- 한국 헌정사와 법관의 역할 전종익 / 181
 -Marie Seong-Hak Kim *Constitutional Transition and the Travail of Jud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자료소개〉

- 1907년 中樞院 〈민법 입법요강〉 정궁식 / 193

- 학회소식 / 213
 韓國法史學會 會則 / 224
 韓國法史學會 研究倫理 規程 / 228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規程 / 233
 法史學研究 刊行規程 / 236
 法史學研究 投稿 및 審査指針 / 240
 掲載費 規則 / 246
 원고 집필 요령 / 247

Contents

〈Articles〉

- A Study on Process of Securing of Ownership after the Trial the Causes of the 漢
 城府 決訟立案 in the 17th CenturyKwon, E-Sun / 11
- Actio Iniuriarum* in Classical Roman LawLee, Sang Hoon / 41
 –Focusing on the Civil Action Cases Freeman Concerned–
- The Study on the *Actio de Deiectis et Effusis*Han, Seungsoo / 105
- Über den Begriff ‘*Dolus Indirectus*’ von CarpzovCHOI, Jun Hyouk / 149

〈Book Review〉

Marie Seong-Hak Kim, *Constitutional Transition and the Travail of Jud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Chon, Jong-Ik / 181

〈Material〉

Jungchuwon, *the Outline of Civil Law Legislation in 1907*
..... Jung, Geung Sik / 193

발 간 사

1974년 『법사학연구』 창간호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후 45년이 지난 작년에 『법사학연구』는 지령 제60호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환희를 회원들과 나눈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춘계 학술대회가 취소되는 등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학계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제61호를 간행합니다.

『법사학연구』 제61호는 논문 네 편과 서평, 자료로 꾸몄습니다.

17세기 한성부의 가대소송과 그 후의 소유권 변동을 분석한 권이선의 논문은 기존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향후 관련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조선시대 결송입안을 종합·정리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학계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욕 등 명예훼손 관련 법리의 원형을 로마법에서 제시한 이상훈의 논문은 현재에 시사점이 큼니다. 그리고 현재 고층 아파트에 살아가면서 이에 따른 위험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 로마법에서 이와 관련된 법적 처리를 검토하여 현재의 입법례까지 소개한 한승수의 논문은 로마법의 우수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논문은 로마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내면의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고의에 대해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카르프조프(Carpzov)의 ‘간접고의’ 이론을 검토한 최준혁의 논문은 법사학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학계에 한국법제사를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김성학(Marie Seong-Hak Kim) 교수의 저서에 대한 서평과 1907년 중추원의 <민법 입법요강>을 소개한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학회지는 단순히 논문만 발표하는

지면이 아니라 비평으로 서로 발전하고 정보의 교환으로 함께 나아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동안 중단된 서평과 자료를 게재하는 것 역시 하나의 보람입니다.

미증유의 사태 탓인지 제61호는 내용이 풍부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법사 관련 논문이 주를 이루었던 전과는 달리 로마법과 서양법제사 논문이 중심이 되어 학술지의 폭이 확장된 점에 위안을 삼습니다.

학계 원로이신 현승중 선생께서 5월 25일 향년 10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해방 후 불모지에서 법사상사, 로마법, 서양법제사 그리고 비교법을 개척하셨습니다. 1973년 2월 10일 학회를 창립할 때 발기인과 이사로 참가하셨으며, 이후 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셨습니다. 삼가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학술활동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옥고를 두고하신 회원님들과 철저한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편집간사 김준현군과 늘 정성을 다하는 민속원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일흔을 바라보는 『법사학연구』에 더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더 풍성하고 알찬 학술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분발과 애정이 깃든 따뜻한 질책을 바랍니다.

2020. 5. 30.

『법사학연구』 편집위원장